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도시인의 개인적속성: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김철수*

I. 서론
II. 연구목적 및 방법
III. 선행연구결과
IV. 분석결과
V. 결론

I. 서론

높은 자원봉사 참여율은 민간차원의 복지확대를 통해 국가의 공공복지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켜 사회통합에 보탬이 된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봉사의 양을 늘이고 질을 다양화할 수 있게도 한다.¹⁾ 이 때문에 참여율이 훨씬 높은 선진국에서조차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축소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고자 자원봉사 참여율을 더욱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²⁾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³⁾ 한

* 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본 논문을 위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감사드리며, 심사위원들의 유익한 조언에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1) 자원봉사활성화의 목적과 의미는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Cnaan and Goldberg-Glen, "Measuring Motivation to Volunteer in Human Service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Vol.27:3, 1991, p.270;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과제의 발전방향, 1994, p.54.

2) Cnaan, Ram and Robin Goldberg-Glen, 위의 글.

3) 자원활동 수요개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성인의 54%, 프랑스 19%, 영국 51%, 일본은 20%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청자 외, 1993, 한국여성개발원, p.20); 한국자원봉사연합회, 자원봉사 계간지 제 6호, p.27; 사회복지정

국사회복지협의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약 357,000명으로 이는 자원봉사자의 추정 잠재모수의 약 1.8%에 불과하며, 순수한 의미의 자원봉사자라고 간주하기 어려운 행정 및 공공기관의 봉사자를 제외하면 그 비율은 훨씬 더 낮아진다.⁴⁾ 따라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자원봉사 참여율은 한국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자원봉사 참여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 속성의 차이,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 수요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구조, 그리고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려는 국가의 정책이⁵⁾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개인이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것인지, 참가한다면 어느 정도나 할 것인지 하는 것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결정은 조직이나 사회구조 및 국가의 정책 등 보다 거시적인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잡한 과정이다.

하지만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국가가 개인의 속성에 따른 최초 참여동기를 파악하여 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조직이나 국가 수준의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들 정책의 주 대상자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6대 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책심의위원회,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발전방향, 1994, p.51; 한국여성개발원, 전국 자원활동 중간지도자 교육자료, 1994; 이에 비해 한국은 15세 이상 국민 중 5.4%만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통계청, 사회지표, 1991); 이 청자 외, 위의 글, p.1).

4) 한혜경 외, 자원봉사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p.10과 p.14; 정무장관(제2)실,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1993.

5) 개인의 자원봉사활동참가와 관련된 결정사항은 먼저 참여여부에 관한 것이고 다음은 참여의 강도, 지속도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조휘일, 한국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1990; Gidron, Benjamin, "Predictors of Retention and Turnover Among Service Volunteer Worker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Vol.8 No.1, 1985, pp.1-16; Miller, Lynn E., "Understanding the Motivation of Volunteers: An Examination of Personality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of Volunteers' Paid Employment,"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Vol.14, 1985, pp.112-122). 기관에 관련된 것은 자원봉사에 참여하게끔 하는 조직적 유인체계와 조직의 특성, 구조(Smith, David Horton, "Altruism, Volunteers, and Volunteerism,"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Vol.10, No.1, 1981, pp.21-36; 이성록, 자원봉사자의 활동실태와 효율적 활용체계에 관한 조사연구, 대구직할시 사회복지협의회, 1993; 조휘일, 위의 글), 국가의 정책에 관한 것은 자원봉사 관련 기관들의 상호연계성과 체계적 관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위한 사회적 유인체계, 봉사활동 중의 상해에 대한 보험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제정(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 위의 글, pp.51-58) 등을 들 수 있다.

속성과 자원봉사 참여 및 참여의향, 그리고 참여희망 분야와의 관계를 알아내어 참여율 증가를 위한 주 대상자를 밝혀 내려 한다. 특정 사회복지 분야나 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전국조사이기 때문에 잠재적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속성과 참여여부와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I.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속성 중에서 어떤 요인이 현재의 자원봉사활동참여와 앞으로의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집단의 참여확률과 참여의향확률을 산출하여 각 집단별로 비교함으로써 자원봉사 참여율 증가를 위한 주 대상은 어떤 개인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인가를 알아 보는 것이다. 덧붙여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참여희망분야별로 어떤 개인적 속성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1) 현재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와 앞으로의 참여의향 여부에 어떤 개인적 속성이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고, (2) 현재 참여자를 포함한 자원봉사활동 경험자와 현재 참여자와를 비교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요인을 살펴 본다. 그 후 (3) 로지스틱 회귀분석계수를 사용하여 개인적 속성별로 선택된 범주의 현재 참가 확률과 앞으로의 참가의향확률을 산출하여 각 집단별로 구체적인 확률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4)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참여희망 분야별로 어떤 개인적 속성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볼 것이다.

2.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현대리서치연구소가 정무장관(제2)실의 용역을 받아 자원봉사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993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수집한 것이다.⁶⁾ 원래의 조사는 2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1차 조사(사전조사)는 전국 조사로서 전국 6대 도시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2차조사(본 조사)는 서울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차 조사 자료이다.

조사대상은 전국 6대 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남녀 1,000명이며 표본은 각 지역의 성, 연령별 인구크기에 비례한 확률표집법(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 Sampling)으로 추출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전화조사가 사용되었다.⁷⁾ 각 지역별로 선정된 표본의 크기는 각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서울 514명, 부산 184명, 대구 108명, 인천 88명, 광주 55명, 대전 51명이다.⁸⁾

1차 조사의 조사 내용은 자원봉사활동 인지도와 경험여부, 자원봉사활동 실태, 응답자 특성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와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여부와 실태, 그리고 응답자 특성에 관련된 항목만이 사용되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모조변수(dummy variable)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이고 연구의 목적은 참여여부에 대한 개인적 속성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적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각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주변수(categorical variable)의 경우 각 범주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 아주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분석방법은 특정 속성을 가진 개인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하므로 현재 참가자와 미래 참가의향자 사이의 확률적 차이에 어떤 개인적인 속성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려는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로지스틱회귀분석에 쓰이는 기본 모델은 아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⁹⁾

6) 정무장관(제2)실,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정책자료 93-4, 1993.

7) 표본추출방법과 조사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정무장관(제2)실, 위의 글 pp.3-4를 참고할 것. 또한 표본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은 본 글 III.분석결과 1.분석대상자의 개인적 배경부분과 <표1>을 볼 것.

8) 1990년 6개도시의 총인구를 100으로 하면 각 지역의 인구비율은 서울 51.4, 부산 18.4, 대구 10.8, 인천 8.9, 광주 5.5, 대전 5.1이다 (통계청, 사회지표, 1993, p.45). 따라서 각 지역의 표본수는 정확하게 각 지역의 인구크기에 비례하여 선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9) SPSS, SPSS/PC+ advanced statistics(ver. 5.0), Chicago, Illinois, 1992, p.2.

$$\text{Prob(event)} = \frac{1}{1 + e^{-Z}} \quad \text{-----}(1)$$

$$Z = B_0 + B_1X_1 + B_2X_2 + \dots + B_pX_p \quad \text{-----}(2)$$

단; Prob(event)는 개인이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확률
 Z는 선형조합, B는 로지스틱분석계수, X는 독립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및 참여의향 여부이며 독립변수로는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9개의 개인적 속성 요인인 성별, 연령, 거주지역, 혼인여부, 미취학 아동의 유무, 직업, 학력, 종교, 가구소득을 사용하였다.

III. 선행연구결과

자원봉사활동에 어떤 개인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가에 관해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개인적 속성만으로 자원봉사 참가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속성 자체가 이미 다른 거시적 영향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개인적 수준의 설명으로서 사회심리적 발전과정이나 사회화의 차이, 혹은 참여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에 대한 동기로 개인적 속성에 따른 참여율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¹⁰⁾

조휘일의 자원봉사 행동과 관련된 개인 특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남녀간의 참여율 차이는 남녀 성역할의 기대차이에 따른 사회화 때문에 여성이 높게 나타나며,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연령에 따른 보상-처벌에 관한 사회심리적 기제의 발달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이타적 행동단계인 노인층에서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정도가 높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 설명한다. 또한 직업은 그와 관련된 경제적 자기이익추구의 동기 때문에 참여율에 차이

10) 조휘일, 위의 글, pp.29-34.

Allen, Natalie and J. Philippe Rushto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Mental Health Volunteers: A Review,"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1983, Vol.12, pp.36-49. Allen 외의 글은 개인의 성격과 이타적 행위로 간주된 자원봉사참여와의 관계에 대한 글들을 검토한 것이다. 참여자의 동기와 유인체계에 관한 것은 Cnaan 외, 위의 글에 잘 요약되어 있다.

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교육은 교육수준의 증가에 따라 상위욕구에 지배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참여율에 차이를 줄 것이라 가정하고 있으며, 계층요인은 참여동기가 계층별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대부분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계층에 따른 참여율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의 경우는 비록 종교적 신념이 자원봉사에 대한 이타적 태도와 일치한다는 증거는 없으나 한국에서는 종교요인이 자원봉사자의 활동태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다.¹¹⁾

이와 같이 개인적 속성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은 특정 속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이론적 배경을 밝히기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이론적 배경을 전제로 하든 간에 개인적 속성에 따라 자원봉사 참여율이 차이를 보인다면 이를 밝혀 내는 것은 참여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주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임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 참여율과 개인적 속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자원봉사 참여동기를 설명하기 위한 부수적 연구로 많이 행해졌으며, 연구 대상자도 이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적 속성을 살펴본 것이 많다. 이들 연구의 결과는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 일반인이라는 점과 사회복지분야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의 일반적인 분야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¹²⁾ 하지만 개인적 속성 중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각 자원봉사 분야별로 개인적 속성에 따른 참여자들의 분포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먼저 현재 자원봉사활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의 분야와 지역에 따라 개인적 속성의 차이가 다름을 알 수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성록의 연구에 의하면 참여자 중 여자가 남자보다 3배정도 많으며, 기혼자가 69.7%,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66.8%로 무종교인 사람보다 월등히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11) 이 부분은 조취일, 위의 글, pp.29-34에 설명된 개인적 속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요약한 것임.

12) 본문의 기존연구의 검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특정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의 복지에서 자원봉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의 의미 및 자원봉사수요기관에 대한 연구대상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영호, "자원복지(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현상학적 기초모델과 방법," 계간 사회복지, 제127호, 1995(겨울), pp.5-33; Ellis, Susan J. "Research on Volunteerism: What Needs to be Done,"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Vol.14, No.2-3, 1985, pp.11-14.

가 전체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와 40대는 각각 16.0%와 11.5%였고 50대가 가장 적은 5.3%였다. 학력별로는 대학생이 36.7%, 고졸 34.4%, 대졸 24.2%, 중졸 4.9%였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전체의 35.7%, 주부가 23.4%이며 그 외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으로 전체의 60%정도가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¹³⁾

사회복지기관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김상옥의 연구에서도 역시 여자가 72.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혼자가 48%, 연령분포는 20대가 53.9%이고 30-49세와 50세 이상은 26.5%와 19.6%로 위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¹⁴⁾ 박하숙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도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위의 결과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종교가 있는 사람과 미취업자의 비율이 역시 높았다. 하지만 기혼자가 18.5%에 불과하여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는 20대의 미혼,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그러나 적십자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적 속성은 위의 연구결과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주경자의 서울지역 적십자 자원봉사자 연구와 조호규의 부산지역 연구에 나타난 개인적 특성을 보면 역시 여자가 월등히 많았으나,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80% 가까이 차지하여 20대가 월등히 많은 위의 연구들과는 연령분포가 판이하게 달랐다. 학력 역시 고졸이 절반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다른 기관의 자원봉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생활정도는 중산층이라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3/4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종교를 가진 사람과 기혼자도 전체의 3/4정도로 많은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보다 기혼자의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기관과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¹⁶⁾

이명위의 재가복지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자가 역시 압도적으로 참여율이 높았으며 종교를 가진 사람이 63.8%로 역시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보다 참여율이

13) 이성록, 자원봉사자의 활동실태와 효율적 활용체계에 관한 조사연구, 대구직할시 사회복지협의회, 1993, pp.100-101. 각 개인적 속성에 관한 비율은 같은 책 <부록표4-1>에서 <부록 표4-6>으로부터 재구성하였음.

14) 김상옥,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0, pp.32-34.

15) 박하숙, 한국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에 관한 연구: 장애인을 위한 복지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1, p.28.

16) 주경자, 자원봉사원의 직무만족과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 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의 경우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1992, pp.36-38. 조호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부산지역 적십자봉사원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p.34-37.

높았고, 기혼자는 58.8%, 연령분포는 20대와 30대가 73.5%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졸이 48.4%, 대재 이상이 34.5%로 거의 대부분의 참여자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 직업별로는 주부, 대학생을 합한 미취업자가 전체의 2/3를 차지하였다. 취업자 중에는 서비스직이 제일 높았고 사무직과 자영업이 그 뒤를 따랐다. 월총수입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참여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⁷⁾

이상 각 자원봉사활동의 분야별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 속성은 공통적으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여자, 미취업자 특히 주부와 대학생의 참여비율이 높다. 하지만 연령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활동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20대가 많은 반면 적십자 자원봉사활동에는 40대의 비율이 높다. 기혼자의 비율 또한 활동분야에 따라 다른데 장애인복지활동의 기혼자 비율이 18.5%인 반면 부산 지역 적십자 자원봉사활동에서의 기혼자 비율은 84%나 되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학력 역시 차이를 보이는데 장애인이나 자원봉사활동단체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는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자가 많은 반면 적십자 봉사자 중에서는 고졸 학력자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적 속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위의 연구결과들과 차이를 보인다. Curtis, Girabb, Baer가 행한 선진 15개 국가의 자원봉사조직참여(Voluntary association membership)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취업자와 고학력자가 다소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령은 중년층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그 다음이 노년층, 청년층의 순으로 참여하여 포물선의 형태를 나타냈다. 하지만 성별, 거주지역의 크기, 결혼여부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거주지역은 대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서 다소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¹⁸⁾

따라서 기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개인적 속성의 차이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달리 나타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봉사활동의 분야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활동을 포함하는 일반적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여부에 관한 개인적 속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므로 두 번째 범주의 연구결과인 연령, 직업, 학력 등이 중요한 변수이고 성별, 거주지역, 결혼여부 등은 중요한 변수가 아닐 것이라 예상할 수

17) 이명위, 재가복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참여욕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p.39-40.

18) James E. Curtis, Edward G. Girabb, and Douglas E. Baer, "Voluntary Association Membership in Fifteen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57(April), 1992, pp.139-152.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들에서는 종교의 유무, 월평균 가구소득도 중요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이 두 변수도 포함하여 살펴볼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자 중에서 주부의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미취학 아동의 유무가 이들의 참여여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변수도 포함할 것이다.

IV. 분석결과

1. 분석대상자의 개인적 배경

분석대상자 총 1000명의 개인적 배경은 <표1>에 요약되어 있다.¹⁹⁾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체의 6.9%이며 과거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9.8%인데 이를 남녀 비율로 보면 현재 활동자와 과거 경험자 중에서 남자의 비율이 각각 55.1%와 58.2%로서 여자보다 약간 높음을 보여 준다.

전체 분석대상자 중에서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69명을 제외한 중에서 47.4%가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5%는 의향이 없다. 나머지 27.6%는 아직 모르거나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참가의향여부와 관련한 성별의 비율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 로지스틱회귀분석

개인적 속성이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전체 분석 대상자를 세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로는 전체 분석대상자 1000명 중에서 과거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미응답자를 제외한 871명을 대상으로 현재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 속성의 특징을 알아보았으며, 다음으로는 현재 참여자와 활동경험자를 포함한 자원봉사활동참여 및 경험자와 미활동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을 알아보았고, 세 번째로는 현재 활동자와 앞으로의 자원봉사활동의향에 대해 현재 모르거나 생각해 본적이 없는 사람을 제외한 583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19) <표1>에는 본 연구와 관련된 분석대상자의 개인적 배경의 특성이 전체대상자와 성별로 나누어 요약되어 있다. 자원봉사활동실태와 관련하여 이들 특성의 교차 분석을 포함하는 기술적 설명(descriptive explanation)은 정무장관(제2)실, 위의 글을 참조할 것.

의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집단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앞으로 참여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성별로 나누어 남녀간의 개인적 속성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표 1) 분석대상자의 개인적 배경(N=1000)

	구분	남자(100%)	여자(100%)	계(100)
자원봉사참가형태	현재활동자	38(7.6)	31(6.2)	69(6.9)
	과거경험자	57(11.4)	41(8.2)	98(9.8)
	미활동자	407(81.1)	426(85.5)	833(83.3)
연령	10대(15-19)	73(14.5)	70(14.1)	143(14.3)
	20대	131(26.1)	135(27.1)	266(26.6)
	30대	137(27.3)	132(26.5)	269(26.9)
	40대	86(17.1)	87(17.5)	173(17.3)
	50대(50+)	75(14.9)	74(14.9)	149(14.9)
혼인	미혼	204(40.6)	167(33.5)	371(37.1)
	기혼	298(59.4)	331(66.5)	629(62.9)
미취학자녀	없음	411(81.9)	386(77.5)	797(79.7)
	있음	91(18.1)	112(22.5)	203(20.3)
직업	전문,관리직	66(13.2)	24(4.8)	90(9.0)
	사무직	98(19.6)	63(12.7)	161(16.2)
	판매,서비스	112(22.4)	54(10.9)	166(16.7)
	생산직	77(15.4)	15(3.0)	92(9.2)
	미취업	146(29.3)	341(68.6)	487(48.9)
	미응답			4
학력	중졸이하	115(22.9)	137(27.5)	252(25.2)
	고졸	214(42.6)	242(53.1)	456(45.6)
	대졸	173(34.5)	119(23.9)	292(29.2)
종교	없음	238(47.4)	157(31.5)	395(39.5)
	있음	264(52.6)	341(68.5)	605(60.5)
가구소득	50만원이하	24(4.9)	25(5.2)	49(5.1)
	50-100만미만	161(33.1)	180(37.3)	341(35.2)
	100-150만미만	174(35.8)	169(35.0)	343(35.4)
	150-200만미만	65(13.4)	56(11.6)	121(12.5)
	200만 이상	62(12.8)	53(11.0)	115(11.9)
	미응답			31
참가의향자*	참가의향있음	213(45.9)	229(49.0)	442(47.4)
	참가의향없음	102(22.0)	130(27.8)	232(25.0)
	모름, 생각안해봄	149(32.1)	108(23.2)	257(27.6)

N=931(현재활동자 69명이 제외된 숫자)

위에서 설명한 각 분석범주에서의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을 가려낸 후 이를 바탕으로 공식(1)과 (2)를 사용하여 특정 개인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현재 자원봉

사에 참가할 확률과 앞으로의 참가확률을 계산하여 현재 참가자와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참가할 확률이 높은 집단의 개인적 속성을 알아보았다.

1) 분석결과: 자원봉사활동참여 및 앞으로의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

(1) 현재 자원봉사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

<표 2>에는 독립변수인 각 개인적 속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에 대한 로지스틱회귀 분석계수 및 표준오차값(standard error)과 부분상관값(R: partial correlation)이 표시되어 있다.

로지스틱계수가 양성인 경우는 각 집단의 참고집단과 비교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커짐을 의미하며 음성일 경우는 그 반대로 해석된다. 부분상관값은 각 독립변수가 자원봉사활동의 참가여부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으로 그 범위는 -1에서 1사이이다. 부분상관값이 양성일 경우는 변수의 값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할 확률이 커짐을 의미하며 음성의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낸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은 직업, 종교의 유무,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개인의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혼인여부, 학력 등은 현재 참가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직업, 종교,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먼저 직업의 경우를 보면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취업자와 비교해 볼 때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더 참여하고 있으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이상인 가구와 비교할 때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의 가구가 덜 참가하고 있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계수로 미루어 볼 때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더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결혼여부와 미취학자녀의 유무가 자원봉사활동의 참가여부에 중요한 변수일 것이라 예상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연령을 통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로지스틱분석계수로 보면 결혼한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더 많음을 보여주고 반면에 미취학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확률이 작아짐을 알 수 있다.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현재 자원봉사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은 남녀간에 차이가 있다. 우선 남녀 공통적으로 영향력 있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종교의 유무와 직업의 종류가 현재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며, 남자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도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표 2〉 현재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의 로지스틱
회귀분석계수: 현재활동자 전체 및 남자, 여자의 개인적 속성의 차이 비교

독립변수	전 체		남 자		여 자	
	로지스틱계수	R	로지스틱계수	R	로지스틱계수	R
연령(참고집단:50대)						
10대	-.681(.825)	.000	-1.725(1.236)	.000	.360(1.252)	.000
20대	-.124(.588)	.000	-.806(.924)	.000	.816(.931)	.000
30대	-.311(.474)	.000	-.373(.659)	.000	.145(.783)	.000
40대	-.196(.414)	.000	-.655(.597)	.000	.892(.694)	.000
지역(참고집단:인천,대전,광주의 중도시)						
서울	.045(.362)	.000	.081(.500)	.000	.178(.584)	.000
부산	-.249(.451)	.000	-.526(.646)	.000	.016(.695)	.000
대구	-.257(.537)	.000	-.530(.744)	.000	.410(.818)	.000
결혼(기혼=1)	.512(.543)	.000	.683(.892)	.000	1.063(.837)	.000
미취학자녀 (자녀있음=1)	-.348(.426)	.000	.162(.575)	.000	-.985(.689)	-.014
직업(참고집단:미취업)						
전문,관리직	.929(.449)**	.069	-.656(.735)	.000	2.374(.714)***	.203
사무직	-.246(.500)	.000	-1.883(.906)**	-.096	.724(.691)	.000
판매,서비스	.370(.403)	.000	-.453(.640)	.000	.067(.681)	.000
생산직	.540(.497)	.000	-.248(.660)	.000	-5.167(15.001)	.000
학력(참고집단:대졸)						
중졸이하	-.104(.459)	.000	-.113(.615)	.000	-.094(.774)	.000
고졸	.171(.349)	.000	.198(.486)	.000	.262(.588)	.000
종교(종교있음=1)	.613(.307)**	.065	.262(.381)	.000	1.486(.651)**	.121
가구소득(참고집단:200만원이상 가구)						
50만미만	-1.194(.828)	-.013	-2.194(1.191)*	-.074	-.321(1.222)	.000
50-100미만	-1.039(.459)**	-.081	-1.697(.6547)***	-.137	-.402(.711)	.000
100-150미만	-.184(.384)	.000	-.417(.5146)	.000	.074(.636)	.000
150-200미만	-.079(.447)	.000	-.192(.595)	.000	-.039(.757)	.000
성별 (남자=1)	.088(.310)	.000	-----	---	-----	---
상수(constant)	-2.826		-1.234		-5.331	
x ² (d.f.)	38.139(21)		30.287(20)		34.314(20)	
유의도(significance)	.012		.065		.024	

** p<.05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s)

미취업집단과 비교해 볼 때 남자의 경우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

에 덜 참가하고 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종교의 경우에는 남녀 공통적으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했을 때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남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데 200만원 이상의 소득가구원과 비교해 보면 100만원 미만의 소득가구원이 덜 참여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의 소득가구원이 50만원 미만의 가구원보다 덜 참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지의 여부는 개인적 속성들 중에서 종교의 유무, 직업의 종류, 월평균 가구소득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남자의 경우에만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한가지 남녀간의 차이에서 중요한 사실은 개인적 속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로지스틱회귀분석모델이 여자의 경우에는 $p=.024$ 로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나 남자의 경우에는 $p=.065$ 로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자의 경우 개인적 속성이 자원봉사활동의 참가에 미치는 영향이 여자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가능한 해석은 남자들은 지역이나 단체를 통한 집단적 자원봉사활동의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과거 경험자를 포함한 자원봉사활동참가자의 개인적 특성

<표 3>에는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미활동자와의 개인적 속성의 차이를 비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하지만 <표 3>에 나타난 로지스틱 회귀분석 계수의 해석에는 약간의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과거경험자들의 개인적 속성은 조사당시의 상황이므로 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때와는 속성이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독립변수의 영향이 과장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령, 결혼여부, 미취학 자녀의 유무, 월평균 가구소득, 학력 등이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큰 독립변수들이다. 단지 <표 2>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결혼여부, 미취학자녀의 유무, 학력은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이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은 과소 평가되고 반대로 감소했을 경우에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장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과거 경험자를 분석 대상에 포함한 <표 3>에 나타난 가구소득의 영향력은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²⁰⁾

20) 과소평가 혹은 과대평가 어느 쪽이던 간에 이점은 분명히 과거 경험자를 포함하여

〈표 3〉 현재 및 과거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의 로지스틱
회귀분석계수: 현재 및 과거 활동자 전체, 남자, 여자의 개인적 속성의 차이 비교

독립변수	전 체		남 자		여 자	
	로지스틱계수	R	로지스틱계수	R	로지스틱계수	R
연령(참고집단:50대)						
10대	-1.073(.537)**	-.048	-1.562(.750)**	-.071	-.722(.847)	.000
20대	-.317(.409)	.000	-1.055(.587)*	-.052	.563(.625)	.000
30대	-.015(.337)	.000	-.067(.472)	.000	.197(.528)	.000
40대	-.017(.312)	.000	-.292(.433)	.000	.516(.490)	.000
지역(참고집단:인천,대전,광주의 중도시)						
서울	-.202(.228)	.000	-.307(.311)	.000	-.088(.355)	.000
부산	-.487(.295)*	-.029	-.561(.400)	.000	-.406(.461)	.000
대구	-.942(.394)**	-.065	-1.127(.519)**	-.077	-.707(.624)	.000
결혼(기혼=1)	-.223(.335)	.000	-.565(.467)	.000	.195(.533)	.000
미취학자녀 (자녀있음=1)	-.436(.296)	-.014	.078(.395)	.000	1.266(.486)***	-.109
직업(참고집단:미취업)						
전문,관리직	.777(.314)**	.069	.505(.487)	.000	.995(.516)*	.065
사무직	.260(.282)	.000	.092(.466)	.000	.248(.444)	.000
판매,서비스	.367(.273)	.000	.270(.450)	.000	.290(.426)	.000
생산직	.194(.362)	.000	.028(.482)	.000	-.435(1.091)	.000
학력(참고집단:대졸)						
중졸이하	-.345(.306)	.000	.161(.405)	.000	-1.033(.498)**	.000
고졸	-.204(.225)	.000	-.010(.315)	.000	-.390(.345)	.000
종교(종교있음=1)	.395(.197)**	.048	.200(.252)	.000	.830(.345)**	.097
가구소득(참고집단:200만원이상 가구)						
50만미만	-.363(.498)	.000	-.264(.654)	.000	-.641(.858)	.000
50-100미만	-.302(.301)	.000	-.618(.4157)	-.022	.053(.460)	.000
100-150미만	-.052(.284)	.000	.056(.3826)	.000	-.225(.440)	.000
150-200미만	.262(.322)	.000	.379(.432)	.000	.210(.500)	.000
성별(남자=1)	.113(.204)	.000	-----	---	-----	---
상수(constant)	-1.178		-.481		-2.013	
x ² (d.f.)	50.107(21)		27.247(20)		45.311(20)	
유의도(significance)	.000		.129		.001	

* p<.1 ** p<.05 *** p<.0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분석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점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험자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본문에서 밝혔듯이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 이럴 경우 현재활동참가자만을 포함시킨 <표 2>와 비교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들의 개인적 속성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표 3>에 나타난 전체 대상자의 결과를 <표 2>와 비교해 보면 과거경험자를 포함시킨 경우 직업과 종교 외에 연령과 거주지역이 중요한 변수로 첨가되고 월평균 가구 소득은 그 영향력을 상실함을 알 수 있다. 연령의 경우에는 50대와 비교해 볼 때 10대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과거경험자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 중의 하나이나 현재 활동자에서는 연령의 차이에 따른 활동실태의 차이가 없었음을 감안해 볼 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중단에 그만 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추정할 수 있다.

소득의 경우에도 현재 참가자만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적는데 반해(<표 2>참고) 과거 경험자를 포함하면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참가자들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중단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저소득 가구의 중간 탈락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경우에는 과거 경험자를 포함하면 인천, 대전, 광주 등의 중도시와 비교하여 부산, 대구 거주자의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것 또한 거주지역의 이동이 높지 않다면 부산, 대구 거주자가 중간에 자원봉사활동을 그만 두는 비율이 높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2>와 <표 3>을 비교해 보면 결혼을 한다는 것이 남녀 모두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중단시키는 변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경험자를 포함시키면 여자에게 있어서는 미취학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참여율을 감소시키며 이는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이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자녀가 생긴다는 사실은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활동을 중단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 보면, 현재 활동자에 있어서는 사무직종사자의 참여율이 적는데 비해 과거 경험자를 포함하면 다른 직업종사자와 참여률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사무직 종사자의 중도탈락률이 많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학력의 경우 과거경험자를 포함할 때 여자의 경우 중졸 이하 학력자의 참여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봐서 중졸 이하 여자 자원봉사자의 중도탈락률이 많음을 알 수 있다.

(3) 자원봉사활동참가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의 차이

<표 4>에는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 속성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연령, 결혼여부, 학력, 종교, 그리고 가구소득에 따라 참여의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10대와 30대가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30대와 40대가 가장 참여할 의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 참여의향이 낮으나, 남자의 경우에는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여자의 경우에만 기혼자의 참여의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미취학 자녀의 유무는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표 4〉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의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의 로지스틱 회귀분석계수: 활동의향자 전체, 남자, 여자의 개인적 속성의 차이 비교

독립변수	전 체		남 자		여 자	
	로지스틱계수	R	로지스틱계수	R	로지스틱계수	R
연령(참고집단:50대이상)						
10대	1.194(.561)**	.000	1.601(.855)*	.000	1.479(.889)*	.043
20대	.733(.426)	.058	1.356(.709)*	.066	.701(.594)	.000
30대	.793(.362)**	.036	.478(.584)	.070	1.281(.515)**	.101
40대	.534(.346)	.061	-.076(.518)	.000	1.179(.518)**	.088
지역(인천,대전,광주의 중도시)						
서울	-.476(.291)	-.030	-.604(.442)	.000	-.377(.422)	.000
부산	-.516(.346)	-.017	-.085(.514)	.000	-1.005(.518)*	-.066
대구	-.179(.375)	.000	.115(.577)	.000	-.575(.532)	.000
결혼(기혼=1)	-.799(.384)**	-.056	-.391(.600)	.000	.372(.399)	.000
미취학자녀 (자녀있음=1)	.439(.301)	.013	.419(.514)	.000	.372(.399)	.000
직업(참고집단:미취업)						
전문,관리직	-.264(.447)	.000	.537(.641)	.000	-.583(.777)	.000
사무직	.233(.345)	.000	.976(.554)*	.057	-.365(.572)	.000
판매,서비스	.316(.307)	.000	.965(.527)*	.063	.202(.460)	.000
생산직	.208(.374)	.000	.674(.541)	.000	-.084(.763)	.000
학력(참고집단:대졸)						
중졸이하	-1.483(.349)***	-.146	-1.033(.513)**	-.077	-1.710(.514)***	-.149
고졸	-.741(.288)***	-.078	-1.044(.421)**	-.110	-.500(.430)	.000
종교(종교있음=1)	.727(.218)***	.110	.609(.305)**	.076	.922(.336)***	.117
가구소득(참고집단:200만원이상 가구)						
50만미만	-1.388(.601)**	-.067	-.113(.821)	.000	-3.210(1.040)***	-.136
50-100미만	-.809(.381)**	-.058	-.537(.520)	.000	-1.338 (.623)**	-.080
100-150미만	-.093(.382)	.000	.267(.528)	.000	-.738 (.608)	.000
150-200미만	.317(.477)	.000	.437(.622)	.000	-.052 (.799)	.000
성별 (남자=1)	.103(.234)	.000	- - - - -	- - -	- - - - -	- - -
상수(constant)	1.410		.398		2.318	
χ^2 (d.f.)	142.721(21)		54.813(20)		115.832(20)	
유의도(significance)	.000		.000		.000	

* p<.1 ** p<.05 *** p<.0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직업별 차이가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남자의 경우 사무직이나 판매, 서비스직 종사자의 참여의향이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학력의 경우 남녀 모두 대졸자에 비해 중졸,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의향이 낮다. 즉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은 학력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종교가 있다는 것은 현재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뿐 아니라 앞으로의 참여의향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여자의 경우 영향력이 더 크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남자 경우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여자의 경우 낮을수록 참여의향이 낮는데 200만원 이상의 소득가구원과 비교해 보면 월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의 가구원은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100만원 미만의 가구원은 참여의향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개인적 속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확률의 비교

<표 5>와 <표 6>는 개인적 속성의 차이에 따른 특정 범주의 사람들이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과 앞으로 참여할 확률을 보여 준다. <표 5>와 <표 6>의 확률은 지금까지 설명한 로지스틱회귀분석계수를 바탕으로 공식(1)과 (2)를 사용하여 산출한 것을 남녀별로 분류하여 표시한 것이다.²¹⁾

먼저 남자의 경우 선택된 범주 중에서 현재 참가할 확률이 가장 높은 개인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50대로 결혼하여 서울에서 거주하며 미취학 아동은 없고 고졸학력자이며 종교를 갖고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이며 참여확률은 38.6%이다. 다음이 50대의 같은 조건이나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33.9%이고 같은 조건의 대졸학력자는 29.7%의 현재 참가할 확률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높은 확률을 보여주는 범주는 40대의 서울 거주자로 기혼이며 대졸 학력자로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월평균 가구소득 150-200만원의 사람들로 15.3%의 참여 확률을 보여주며 같은 조건의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12.2%의 확률을 보여 준다. 20대의 서울 거주 대학생들은 종교의 유무에 따라 이보다 다소 낮은 12.8%와 10.2%로 나타나 있다.

이외의 다른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훨씬 낮은 수준인 .4%에서 6.2%사이의 현재 참여 확률을 보이며 특히 20대 서울 거주 미혼 사무직 종사자로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21) 각 개인적 속성별로 확률을 산출하면 범주가 상당히 많아지고 현실적으로 의미 없는 집단도 포함되므로 <표 5>와 <표 6>에는 통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변수만을 고려한 집단들에 한해 참가확률을 산출한 결과만을 포함하였다.

들은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4%로 나타나 선택된 범주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참여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률을 살펴보면 남자들 중에서는 50대 이상과 40대의 전문관리직, 그리고 대학생층이 자원봉사활동에 가장 활발히 참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50대의 연령구분에 50대 이상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과 <표 5>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무직자의 참여율이 더 높은 것을 감안하면 연금생활자나 정년퇴직자인 노년층의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개인적 속성별 현재참여 및 앞으로 참여의향 확률 (서울거주, 남자)

개 인 적 속 성							현재참가 확률	참가의향 확률
연령	혼인 여부	미취학 아동	직업	학력	종교	가구소득	%	%
10대	미혼	무	학생	고졸	유	100-150만원	4.1	77.5
10대	미혼	무	학생	고졸	무	100-150만원	3.2	65.2
20대	미혼	무	대학생	대재	유	100-150만원	12.8	72.8
20대	미혼	무	대학생	대재	무	100-150만원	10.2	59.2
20대	미혼	무	사무직	대졸	유	50-100만원	.5	90.0
20대	미혼	무	사무직	대졸	무	50-100만원	.4	83.0
20대	기혼	무	사무직	대졸	유	50-100만원	1.0	85.9
20대	기혼	무	사무직	대졸	무	50-100만원	.8	76.8
20대	기혼	유	사무직	대졸	유	50-100만원	1.0	90.3
20대	기혼	유	사무직	고졸	유	50-100만원	1.4	76.5
30대	기혼	유	사무직	대졸	유	100-150만원	6.2	89.6
30대	기혼	유	사무직	대졸	무	100-150만원	4.8	82.4
40대	기혼	무	전문관리	대졸	유	150-200만원	15.3	71.3
40대	기혼	무	전문관리	대졸	무	150-200만원	12.2	57.5
40대	기혼	무	사무직	대졸	유	150-200만원	5.0	79.4
40대	기혼	무	사무직	고졸	유	150-200만원	6.1	57.6
50대	기혼	무	전문관리	대졸	유	200만원+	29.7	63.4
50대	기혼	무	전문관리	고졸	유	200만원+	33.9	37.9
50대	기혼	무	판매, 서비스	고졸	유	200만원+	38.6	55.1

반면에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을 보면 현재 참여자의 확률과는 매우 다르며 전반적으로 현재 참여확률에 비해 상당히 높다. 선택된 범주의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참여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20대의 미혼이거나 결혼하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약 90%의 참여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사무직 종사자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인 사람들과 20대 사무직 종사자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80%대의 참여

의향확률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참여확률이 가장 높은 범주인 50대 이상과 40대의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낮은 참여의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50대 이상이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은 현재 참여 확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30%대이다. 10대와 20대의 학생들은 특히 종교의 유무에 따라 앞으로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를 갖고 있는 10대와 20대는 각각 77.5%와 72.8%의 참여의향확률을 보이나 종교를 갖지 않은 같은 조건의 10대와 20대는 각각 65.2%와 59.2%의 참여의향확률을 나타낸다.

현재의 참여확률과 앞으로의 참여확률을 비교해 보면 참여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적절히 자원봉사활동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회사원들이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의향이 높는데 이는 기업 차원에서의 단체참여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 주부층이 자원봉사의 주 활동자인 점을 감안하여 주부층을 중심으로 개인적 속성에 따라 현재 참여확률과 앞으로의 참여의향확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여자의 경우 선택된 범주 중에서 현재 참여율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40대의 서울 거주 기혼자로서 미취학 아동은 없으며 종교가 있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의 주부들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고졸학력자는 18.4%, 대졸학력자는 14.8%의 참여확률을 보여 준다. 그 다음이 20대의 같은 조건의 주부로서 현재 참여확률은 12.7%이다.

이외에 대학생과 30대의 기혼자로서 미취학 아동이 없는 주부가 비슷한 참여율인 7.5%와 8.4%의 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남자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고른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특히 여자의 경우 종교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참여의향확률 역시 남자의 경우보다 전 연령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의 대상자로서 여자가 남자보다 폭넓게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대학생의 참여의향확률과 40대의 기혼자로서 미취학 아동이 없는 주부의 참여의향이 가장 높고 30대의 참여의향확률이 20대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남자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즉 남자의 경우 20대와 30대의 참여의향이 가장 높는데 반해 여자의 경우 대학생과 40대, 그리고 30대의 참여의향이 높고 20대의 참여의향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자의 경우는 대학생을 제외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는데 반해 남자의 경우는 20대와 30대의 참여의향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앞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확률은 급속히 줄어든다.

〈표 6〉 개인적 속성별 현재참여 및 앞으로 참여의향 확률(서울거주, 여자)

개 인 적 속 성							현재참가 확률	참가의향 확률
연령	혼인 여부	미취학 아동	직업	학력	종교	가구소득	%	%
10대	미혼	무	고등학생	중졸	유	100-150만원	3.5%	86.9
10대	미혼	무	고등학생	중졸	무	100-150만원	.8	72.6
20대	미혼	무	대학생	고졸	유	100-150만원	7.5	91.1
20대	미혼	무	대학생	고졸	무	100-150만원	1.8	80.3
20대	기혼	유	주부	고졸	유	50-100만원	5.2	66.4
20대	기혼	유	주부	고졸	무	50-100만원	1.2	44.0
20대	기혼	무	주부	고졸	유	50-100만원	12.7	54.7
20대	기혼	무	주부	고졸	무	50-100만원	3.2	35.1
20대	기혼	유	주부	대졸	유	50-100만원	4.0	76.5
20대	미혼	무	판매	고졸	유	50-100만원	5.1	87.3
30대	기혼	유	주부	고졸	유	100-150만원	4.3	86.5
30대	기혼	유	주부	고졸	무	100-150만원	1.0	71.9
30대	기혼	무	주부	대졸	유	100-150만원	8.4	88.0
30대	기혼	무	주부	대졸	무	100-150만원	2.0	74.4
40대	기혼	무	주부	고졸	유	150-200만원	18.4	88.8
40대	기혼	무	주부	고졸	무	150-200만원	8.3	76.0
40대	기혼	무	주부	대졸	유	150-200만원	14.8	92.9
40대	기혼	무	주부	대졸	무	150-200만원	3.8	83.9
50대	기혼	무	주부	고졸	유	150-200만원	8.5	71.0
50대	기혼	무	주부	고졸	무	150-200만원	2.0	49.3
50대	기혼	무	주부	대졸	유	150-200만원	6.6	80.1
50대	기혼	무	주부	대졸	무	150-200만원	1.6	61.6

3) 참여희망 분야별 개인적 속성의 차이

현재 참가자 69명을 제외한 931명 중에서 앞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442명이 가장 우선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봉사분야의 비율을 살펴보면 '노력봉사'를 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1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캠페인/지역봉사' 14.9%, '상담' 12.9%, '위문활동' 10.2% 등이 비교적 참여희망자가 높은 분야였다. 그밖에 '행사보조' 9.5%, '대화놀이상대' 9.3%, '안내/접수' 8.4%, '전문기술기능봉사'와 '학습지도' 7.5% 순이었으며 나머지는 '소방/방범활동', '프로그램 기획홍보', '조사연구' 등의 분야였다.

참여희망분야별 비율을 보면 자원봉사 참여의향자들의 관심분야가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참여를 향상을 위한 정책도 이에 맞춰 다양하게 시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희망분야가 아적인 노력봉사나 위문활동, 캠페인/지역봉사 등의 단순봉사활동에 치우쳐 있고 상담이나 전문기술기능봉사 등의 전문분야는 상대적으로 참여희망이 낮은 분야임을 알 수 있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편으로 전문직 종사자의 참여유도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봉사활동 분야의 참여희망자들에게 필요한 기술이나 기능 등을 제공하여 전문분야에로 전환시키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표 7>과 <표 8>은 자원봉사 참여의향자 442명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분야별로 개인적 속성의 차이가 있는가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는 자원봉사 참여의향자 중에서 특정 분야의 희망자를 1, 나머지 분야의 희망자는 0으로 기호화하였다. 먼저 자원봉사 참여의향자들을 참여희망 분야별로 세 범주로 나누어 각 범주와 다른 범주를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7>에 요약하였다. 첫 번째 범주는 전문기술기능분야로 '상담', '조사연구', '프로그램기획홍보', '학습지도', '대화놀이상대', '도서관관련업무', '이미용이나 보건의료 등의 전문기술기능' 분야를 포함한다. 두 번째 범주는 노력봉사분야로 '행사보조', '사무/행정보조', '안내/접수', '청소, 급식, 목욕 등의 노력봉사' 등을 포함하고 마지막 범주는 '캠페인/지역봉사', '위문활동' 등을 포함하였다.

<표 7>에 의하면 전문기술기능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결혼여부, 학력, 가구소득, 성별에서 차이를 보였다.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학력과 성별이었는데 학력의 경우 대학졸업자가 중졸이나 고졸학력자에 비해,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 비해 이 분야의 자원봉사를 훨씬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변수는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이외에 결혼한 사람들이 전문기술기능봉사의 참여를 더 원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의 경우에는 150만원-200만원 미만의 사람들이 이 분야

의 봉사를 더 원하는데 각각 $p=0.05$, $p=0.1$ 의 통계적 유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자원봉사 참여의향자 중 자원봉사 분야별 개인적 속성의 로지스틱 회귀분석계수

독립변수	전문기술기능		노력봉사		기타(캠페인/지역/봉사위문활동)	
	로지스틱계수	R	로지스틱계수	R	로지스틱계수	R
연령(참고집단:50대)						
10대	.226(.656)	.000	.512(.634)	.000	-.780(.641)	.000
20대	-.373(.572)	.000	.794(.546)	.014	-.474(.535)	.000
30대	-.270(.532)	.000	.828(.498)*	.037	-.595(.486)	.000
40대	.428(.513)	.000	.024(.504)	.000	-.407(.476)	.000
결혼(기혼=1)	.825(.408)**	.062	-.618(.381)	-.034	-.109(.393)	.000
미취학자녀 (자녀있음=1)	-.345(.367)	.000	.247(.326)	.000	.058(.349)	.000
직업(참고집단:미취업)						
전문,관리직	.261(.414)	.069	-.264(.429)	.000	.024(.440)	.000
사무직	-.092(.327)	.000	-.044(.308)	.000	.153(.328)	.000
판매,서비스	.336(.360)	.000	-.473(.342)	.000	.111(.347)	.000
생산직	.275(.519)	.000	-.565(.471)	.000	.194(.453)	.000
학력(참고집단:대졸)						
중졸이하	-1.094(.408)***	-.098	.605(.391)	.027	.518(.402)	.000
고졸	-1.077(.272)***	-.159	.653(.260)**	.088	.408(.276)	.018
종교(종교있음=1)	-.089(.237)	.000	-.023(.227)	.000	.116(.235)	.000
가구소득(참고집단:200만원이상 가구)						
50만미만	1.290(.816)	.031	-.578(.891)	.000	-.775(.838)	.000
50-100미만	.380(.392)	.000	-.126(.363)	.000	-.236(.379)	.000
100-150미만	.140(.375)	.000	-.051(.344)	.000	-.066(.357)	.000
150-200미만	.726(.420)*	.043	-.272(.409)	.000	-.487(.431)	.000
성별 (남자=1)	-.874(.252)***	-.136	-.199(.242)	.000	1.097(.255)***	.176
상수(constant)	-.060		-1.183		1.026	
x(d.f.)	46.634(18)		23.200(18)		38.184(18)	
유의도(significance)	.0002		.183		.0037	

* $p<.1$ ** $p<.05$ *** $p<.0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s)

노력봉사의 경우 학력과 연령이 중요한 변수이며 학력의 경우 고졸 학력자가, 연령의 경우에는 30대가 이 분야의 자원봉사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으며 각각 $p=0.05$, $p=0.1$ 의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캠페인/지역봉사와 위문활동의 경우 오직 성별의 차이만이 나타났는데 전문기술기능분야와는 달리 남자들이 이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더 많이 원하고 있다.

이를 각 구체적 분야별로 살펴 본 것이 <표 8>에 요약되어 있다. <표 8>은 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각 분야별로 차이가 있는 개인적 속성을 표시하였다.

자원봉사 참여의향자 중에서 상담분야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학력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자들이 이 분야에서의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른 개인적 속성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특히 상담은 여성이 많이 참여하고자 하는 분야로 예상했었지만 성별의 차이는 없었다. 대화놀이상대 분야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여성들이 많고, 직업별로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10대가 많이 이 분야에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원봉사 참여 유인 이론(Incentive Theory)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세 가지 보상체계(reward system) 중의 하나인 인간적 유대관계의 획득을 위해 10대 생산직 여성들이 대화놀이상대 분야의 봉사활동을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²⁾ 따라서 이들의 참여동기인 인간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정책, 예를 들면 결연사업의 활성화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8>자원봉사활동분야별 개인적 속성의 영향

독립변수	상담	대화놀이상대	전문기술기능	행사 보조	노력봉사	캠페인/ 지역봉사
연령		* (10대)	*** (40,50대)		* (30대)	
결혼			* (기혼)		* (미혼)	
미취학자녀			** (무)			
직업		** (생산직)	*** (전문, 관리직)			
학력	** 대졸				*** (중졸, 고졸)	
종교						
성별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p<.1 ** p<.05 *** p<.01

22) Knoke, David and James R. Wood. Organized for Action: Commitment in Voluntary Associations, Rutgers University Press: New Brunswick, NJ, 1981, ch.3; Smith, David Horton, 위의 글.

전문기술기능분야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연령, 결혼여부, 미취학자녀유무, 직업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40대 이상의 연령층과 전문/관리직 종사자,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과 미취학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의 자원봉사를 원했다. 따라서 40대 이상의 미취학 자녀가 없는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이 분야의 주 대상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기술기능이 필요한 이 분야의 특성상 타 분야 희망자에게도 자원봉사자 훈련을 통해 전문기술기능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인체제를 정책적으로 개발하여 이 분야에 참여를 유도한다면 이 분야의 참여율 증가는 물론 전체적인 참여율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행사보조와 캠페인/지역봉사의 경우에는 남성들이 많이 참여를 희망하였고 다른 개인적 속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청소, 목욕, 급식서비스 등 노력봉사에는 연령, 결혼여부, 학력, 성별 등에서 다른 분야와 차이를 보였는데 3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이 분야에의 참여희망이 많았고,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많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학력과 성별이었는데 단순노력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고졸 이하의 사람들이 많았고, 봉사활동의 내용상 여자의 참여희망이 남자보다 높았다. 이외에 위문활동이나 안내/접수 등의 분야에서는 개인적 속성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V. 결론

분석결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적 속성은 자원봉사의 참가여부 뿐 아니라 참여희망 분야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 중 중요한 부분을 <표 9>에 요약하였으며 각 과정에서의 영향력 있는 변수들도 함께 표시하였다.²³⁾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 중에서 현재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 속성 중 직업, 종교, 가구소득에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차이를 보였다. 즉, 다른 직종에 비해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참여비율이 높았고, 소득이 높은 가구의 구성원일수록,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원봉사에의 참여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성

23) <표 9>는 분석과정을 요약하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각 변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본론의 분석 결과를 참조할 것. 또한 이 그림에서는 현재참여자를 포함한 자원봉사경험자와 미경험자의 비교, 참여의향확률에 관한 부분은 현재 참여자와 비참여자, 참여의향자의 분야별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생략하였음.

사람들 중에서는 결혼여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의 참여의향은 여자의 경우에만 미혼자들보다 기혼자들이 높았다. 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은 남녀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대졸 학력자들과 높은 가구소득의 구성원들이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종교가 있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남녀 모두에게 현재 자원봉사 참여 및 앞으로의 참여의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변수였으며 특히 여자에게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한편 거주지역, 미취학 자녀의 유무는 앞으로의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각각의 개인적 속성을 바탕으로 선택된 몇 가지 범주의 현재 참여확률과 앞으로의 참여의향확률을 비교해 보면 강한 참여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적절히 자원봉사활동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자의 경우 강한 참여의향을 갖고 있으나 현재 참여확률은 낮은 20대와 30대의 사무직 종사자와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주 대상자들이며 이들의 강한 참여의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직장단위와 대학단위의 활성화 방안이 대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한편 현재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참여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노인층을 자원봉사에 유도하기 위한 유인체계가 개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자원봉사활성화의 주 대상자가 20대와 30대임에 반해 여자의 경우에는 20대와 50대 이상의 종교를 갖지 않은 집단을 제외하면 전 연령층이 70% 이상의 참여의향확률을 보임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주 대상자가 남자보다 폭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참여의향확률이 높은 집단은 40대 주부와 대학생이었다. 이외에 30대의 주부도 비교적 높은 참여의향확률을 보이며 주부가 아닌 집단에서는 20대의 미혼 판매직 종사자가 5.1%의 비교적 낮은 현재 참여확률에 비해 참여의향확률은 87.3%를 보임으로써 앞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자원봉사 활성화방안의 주 대상자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현재 참여확률이 낮은 20대와 30대의 젊은층이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주 대상자이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장이나 대학단위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여자의 경우는 남자와 달리 현재 참여확률이 높은 20대의 주부와 대학생, 그리고 30-40대의 주부, 20대의 미혼 판매직 종사자가 앞으로의 참여의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인 주부모임의 활성화, 자원봉사기관의 유인체계강화, 자원봉사와 관련된 홍보활동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종교가 중요한 변수였으며 이는 앞으로의 참여를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교단체를 통한 자원봉사의 활성화 방안도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 9>의 세번째 분석범주에서는 참여의향자 중에서 활동희망 분야별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결과 통계적 유의미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개인적 속성을 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기존연구의 검토를 바탕으로 예상한 바와 같이 앞으로의 참여의향자들에게 있어서도 활동분야별로 개인적 속성의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려는 이유가 이기적 혹은 이타적 동기²⁴⁾에서건 참여동기이론²⁵⁾이나 유인체계이론²⁶⁾이 설명하듯이 참여동기에 대한 만족의 추구 혹은 상응하는 보상의 기대에서건 각 분야별로 나타난 개인적 속성인 결혼여부, 학력, 가구소득, 성별, 연령에 맞는 활성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분야별로 요약하면 전문기술기능이나 상담분야 등에 높은 참여율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종사자의 참여유도 뿐 아니라 단순봉사활동 분야의 참여희망자들에게 필요한 기술이나 기능 등을 제공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정책도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화놀이상대를 원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인간적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 정책으로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이나 저학력자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참여의향을 보이는 단순노력봉사 분야에서는 자원봉사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라든가 자원봉사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등의 합리적 유인체계가 활성화 정책으로서 필요하다. 남자들이 많은 참여의향을 보이는 캠페인/지역봉사의 경우에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공식, 비공식의 지역 모임을 기반으로 하거나 새로운 지역모임의 형성을 유도하여 이를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현재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여부와 앞으로의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 속성에 따른 집단별 현재 참여확률과 참여의향확률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현재 참여확률에 비해 참여의향이 높은 집단의 개인적 속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따라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주 대상자를 개인적 속성에 따라 가려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참여의향이 높은 사람들을 적절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시키

24) 박하숙, 위의 글.

25) Phillips, Michael, "Motivation and Expectation in Successful Volunteerism",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Vol.11, 1982, pp.118-125; Adams, David, "Elite and Lower Volunteers in a Voluntary Association: A Study of an American Red Cross Chapter,"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Vol.9, 1980, pp.95-108.

26) Knoke, David and James Wood. 위의 글.

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개인적 속성과 관련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자원봉사활동분야에 따라 참여의향자들의 개인적 속성이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분야별로 개인적 속성에 따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글의 목적이 자원봉사참여 여부와 분야별 참여의향에 대한 개인적 속성의 차이를 밝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주 대상자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시된 정책적 방향은 앞으로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 속성과 참여동기 및 유인체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